

예수교연합성결회

만민중앙교회

MANMIN CENTRAL CHURCH



대성전 조감도

1982.10.10. 창립

위임 목사 **이 재 록**

Senior Pastor : Dr. **Jaerock Lee**

www.drlee.or.kr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교회 믿고 순종하는 교회

전 교인 기도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 항상 기도제목

- 1) 위임목사 2)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3) 구제

■ 2022년도 기도제목

- 1) 불가능이 없는 믿음 (마가복음 9:23)
- 2) 거룩한 자녀 (데살로니가전서 4:3, 디모데전서 4:5)
- 3)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전 (마태복음 21:12~13)
- 4) 재창조의 권능 100% (에스겔 37:4~10)

교회를 섬기는 분들

<p>부 목 사/ 이수진(당회장 직무대행)</p> <p>(남) 안성현 조대회 조혁희 조수열 주현철 정규원 김영석³ 장성식 정현진 이풍근 임학영 박광현 이석규 정진영 조성도 노영진</p> <p>(여) 이미경 최영자 이미영 이성숙 황금란</p> <p>선교 목사/ 페르난도 보르본</p> <p>협동 목사/ 문신현</p> <p>전 도 사/ 김영순 권영남 차경숙 최영신 이영인 황미경 최성숙 서덕분 박금미 오인숙 곽윤진 윤영자 임금선 황미선 조은영 강순길 정영임 임해숙 문순미 장정미 류순주 고경아 김진주</p> <p>평신도 교역자/ 김복례 권순희</p> <p>지교회 교역자/ 문태규 정철수 이행업 박흥영 김요한 강승표 박형렬 박재영 최제수 서진범 김창숙 박종대 황병덕 오한준 김혜경 차찬환 강영식 이성철 윤진영 김상휘</p>	<p>해외선교사/ 아프리카: 정명호, 폴 무사피리 날완고(협력), 자코 네마 시카텐다(협력) 일 본: 정경태, 도끼꾸니 야스히로, 고마쯔 미끼, 도끼꾸니 미야고 중 남 미: 페루·콜롬비아 장정연, 온두라스 에스태반 한달 러 시 아: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미 국: 남상승, 마크 바질레프 캐 나 다: 이성일 영 국: 제인 음폴로고마, 데이빗 무카사 독 일: 이바울 몰 도 바: 알렉산드르 따바라누, 비탈리 따바라누 대 만: 김경희 필 리 판: 조찬형, 성 숙, 김은자, 김주범 인 도: 김상휘 몽 골: 발저리 푸레브, 안흐바야라 간바타르 말레이시아: 이정훈 인도네시아: 자바르 H 시라이트, 메르나 탐바 파키스탄: 월슨 존 길, 타리크 지아 중 동: 보나 시두아탈라 은심바, 알렉산드르 우라조프 에스토니아: 그리고리 콜레소프</p> <p>원로 장로/ 이정호 장 로/ 빈성건 이동립 최종태 이주월 추오동 이시헌 박광호 유익선 최정수 오세영 박영준 정안권 박노철 김왕기 박현재 박경춘 최을호 김대석 성낙훈 김홍만 김규식 송왕근 김진홍 송석길 이강준 장영규 이익석 임영석 김종태 김용석 정택수 조휴용 윤성식 김기호 박흥열 박영갑 김봉완 홍명일 김준호 이강복 김용덕 윤창수 이재환 권태봉 채윤석 김석환 진교성 황병현 박성준 최병술 이덕행 최혁수 허은범 정태찬 고광규 임종서 서희석 신상문 정성구 김부삼 정성식 이상원 마문국 마수용 이용석 김한구 김순오 마문복 유승열 손영택 윤부열 박중용 송영현 이성의 정명호 정용필</p> <p>명예 장로/ 김영선 김세원 윤석재 강재관 김영조 이성철 마광희 장세웅 서근종 최신일 한병용 나종규 이기완 한홍렬 김재규 한광현 심상식 오성준 하문복 허명옥 배철호 김영남 서상기 문경진 박진무</p> <p>협동 장로/ 김영호 김진형 김남민 정용채</p> <p>지 휘 자/ 임마누엘 성가대: 김한구 살롬 성가대: 박중용 나 사 랫 성가대: 이영철 금빛 성가대: 이영철 흰 돌 성가대: 서승원 膩시오케스트라: 김한구</p> <p>반 주 자/ 민연홍 김서영 이현미 손은혜 김선자(오르간) 김보석</p>
--	---

* 표는 일어서서

개회송영	주 악
기 원	사 회 자
* 개회찬송 8장	다 같 이
* 성서교독 39번	다 같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자복기도	다 같 이
찬 송 123장	다 같 이
기 도	최영자 목사
성경봉독 민수기 6:22~27	사 회 자
찬 양 주 영광 보리라/ 임마누엘성가대 닛시오케스트라	
설 교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2)	당회장님
기 도	다 같 이
환자기도 영상	당회장님
찬 송 만민 찬양 81장	다 같 이
헌 금	다 같 이
광 고	사 회 자
봉헌기도	사 회 자
새교우환영	사 회 자
* 축 도 영상	당회장님

(옆 사람과 인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일 저녁예배

주일 오후 3시

사회/ 장성식 목사

대표기도	김영순 전도사
성경봉독	욥기 14:7~16/ 사회자
찬양	저 하늘은 주 영광 나타내네/ 살롬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특송	몰도바 만민교회 무용팀
설교	욥기 강해(33) - 과거를 추억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욥/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사회/ 정규원 목사

대표기도	류순엽 권사
성경봉독	창세기 13:14~18/ 사회자
찬양	금빛성가대
설교	꿈을 갖고 이루는 자/ 문태규 목사

금요 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시

사회/ 차전환 목사

대표기도	이성철 목사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17:1~10/ 사회자
찬양	임마누엘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설교	요한계시록 강해(60)/ 당회장님

2-9회 10차 다니엘 철야

시간/ 매일 오후 9시 ~ 11시 (금요일은 제외)
인도/ 이복남 원장
기간/ 12월 5일(월) ~ 12월 25일(주일)
주제/ 성탄행사, 사무연회, 성전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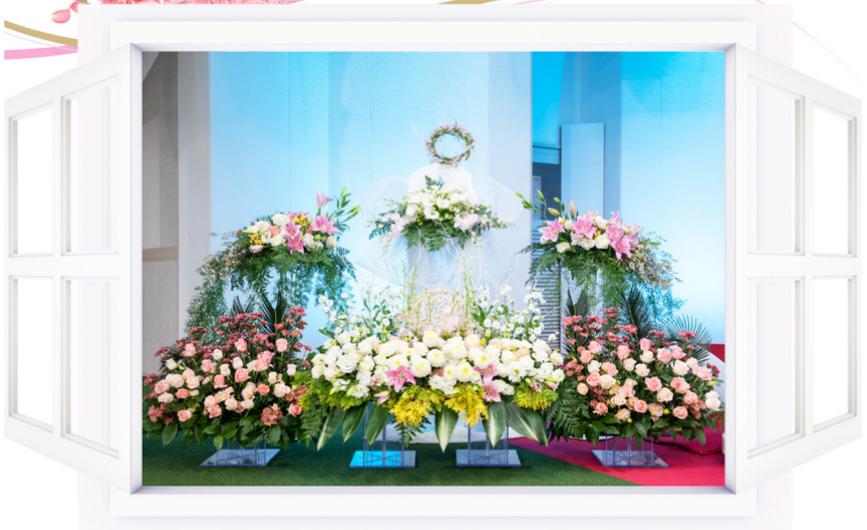
새벽 예배

※ 추후 공지 시까지 새벽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주 예배 위원

예배	사회	대표기도
주일 대예배	조혁희 목사	이성숙 목사
주일 저녁예배	문신현 목사	서덕분 전도사
수요 예배	박광현 목사	임금선 전도사
금요 철야예배	박형렬 목사	조혁희 목사

강단헌화
갤러리



제 목 :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1)

본 문 : 민수기 6:22~27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과 축복을 온전히 받기 위해 응답을 막고 있는 근본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를 명하십니다.

“...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온갖 위험과 재앙으로부터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께서서는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자녀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건강, 물질, 가정, 일터 등 모든 분야에 축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혹여 아직 응답을 못 받으셨거나 일부만 응답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는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본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서, 또는 준비가 부족해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지요.

하지만 설령 응답을 못 받으셨다고 해도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열심히 심고 구한 대로 응답 주시려고 축복을 쌓아둔 채 기다리시고,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기만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고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응답을 막고 있는 근본 원인만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실히 깨닫고 해결하십시오. 복합적인 축복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 근본의 문제 해결하면 복합적인 응답 임해

‘근본의 문제’란 무엇일까요?

질병, 물질, 가정 문제 등 인생 문제에는 저마다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지 못하거나 축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 원인이 있지요.

원인 중에서도 직접적인 원인, 근본 뿌리가 되는 원인이 바로 ‘근본의 문제’입

니다. 따라서 이 근본의 문제, 곧 근본 원인을 해결하면 갖가지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고 복합적인 응답이 임합니다.

이 근본 원인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 갖가지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범사가 형통하지요.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4절 전반 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하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니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원수 마귀 사단이 송사하므로 죄의 보응으로 갖가지 재앙이 옵니다. 이 죄는 또한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이 되어 하나님과의 교통을 단절시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와 그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했지요. 시편 66편 18절에 시편 기자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고백합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대화도 단절되고 아무 상관 없는 남남처럼 되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2.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근본의 문제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에는 높고 두꺼운 담이 있는가 하면 비교적 낮고 얇은 담이 있습니다. 각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이에 따라 근본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중한 죄로 인해 담이 생긴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죄는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진정 돌이키면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심히 노엽게 하는 큰 죄악은 쉽게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죄를 구분하여 결코 범해서는 안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입니다. 또 히브리서 6장의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히브리서 10장에서 경고하는 ‘진리를 알면서 집짓 짓는 죄’,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훼방, 모독, 거역

의 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육체의 일에는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육체의 일이란 가령 누군가가 미워서 혈기를 못 참고 때렸다면, 이는 행함으로 나타났기에 육체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돌이켜지는 일하기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느 것은 육체의 일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이지요.

혹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며 행해 나가는데도 사업이 불통했다면 근본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을 행했던 것을 찾아서 해결해야 하지요. 지금은 행치 않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 환경이 되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 근본에서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마음 근본에서 돌이켜야 하나님과 완전히 정리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을 범하는 경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곧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성경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든 말씀은 없습니다. 어떻게 믿을 때 구원받는다든 단서가 반드시 있지요. 죄를 회개하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가르쳐 줘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고 축복받아 가는 것입니다.

또 성령 훼방, 모독, 거역의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짐짓 죄를 범하는 경우 역시 그 결말은 영원한 지옥, 불의 심판이라고 했지요.

이런 중한 죄들은 본래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심히 대적하는 죄이고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회개의 영이 오지 않으니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도 쉽지 않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특별한 은혜를 여러 차례 주셔서 이런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공의에 맞을 때 구원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 죄로 인해 온 질병이나 가정의 문제를 해결 받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오셨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셨지요.

그런데 스스로는 도무지 회개할 수도 없었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죄의 담이 두터운 만큼, 또 오래된 만큼 허물기가 더 어려웠지요. 그러나 늘 곤고하고 답답하고 고통 중에 살아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님과 죄의 담이 너무 크기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도 회개의 영이 오지 않는 것일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들은 가벼운 다른 죄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죄인 줄 알면서 짐짓 지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 번, 두 번 죄를 지으면 하나님 뵈기도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 번, 네 번 거듭 지어가면 점점 민망함도 부끄러움도 사라지지요.

바늘 도적이 소도적 된다고 하듯이 한 번, 두 번 죄를 지을수록 마음에 선한 양심이 사라져 가고 반대로 악해집니다. 죄를 범하는 것도 처음에는 곤고한데 점점 거듭될수록 곤고함도 사라져 버릴 때가 있지요. 자꾸 짐짓 죄를 지어가니까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슨 죄든 그렇습니다. 선한 마음이 사라지고 악한 마음으로 바뀌며 하나님과의 죄의 담이 그만큼 두꺼워지니 스스로 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외면해 버리신 지가 오래데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 죄의 담을 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다 보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의 죄의 담이 두꺼워져서 진리는 늘 들어서 알면서도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한다고 하지만 마음 중심에서 돌이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어서 이 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지, 죄의 결말은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왜 회개한다고 하는데도 회개가 되지 않고 담도 허물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중심의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개했다고 했는데 똑같은 죄를 또 범한다면 이는 진정 회개한 것이 아니지요.

또는 다시 죄를 범치는 않았는데 깊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회개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 회개가 아니고 거짓 회개이므로 오히려 담만 더 높이 쌓을 뿐이지요.

진정한 회개에는 증거가 따릅니다. 바로 '통회자복'을 하게 되지요. 통회자복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말고 꼭 마음에 명심하셔서 하나님과 죄의 담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나하나 허물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근본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의 담이 일절 없이 이제는 삶의 갖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 받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행복만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축복, 곧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아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 : 욥기강해(32) - 천국 소망이 없는 욥
 본 문 : 욥기 14:1~6

오늘은 천국 소망이 없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여인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며 인생의 허무함을 논하는 욥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욥 14:1~2)

여기서 욥은 여인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여자의 위치는 대체로 남자의 종처럼 팔시받으며 순종만 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 여자인 하와를 통해 죄가 들어왔으며 인류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주므로 아담도 그것을 먹음으로 불순종하기에 이르렀지요.

근본적으로 여자는 하와의 본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남자에 비해 마음이 연약하고 간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로 남자의 심지가 여자에 비해 더 곧고 변개함이 적은 편이지요.

하나님께서서는 이렇다저렇다 하는 간사한 마음을 아주 싫어하시며, 남자와 같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곧고 변개함이 없는 중심을 사랑하십니다(고전 16:13). 그러나 여자라 해도 구약 시대에 선지자 드보라나 에스더와 같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크게 쓰임 받아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곧은 중심과 남자에 못지않은 담대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지금 너무나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과 짧음을 꽃과 그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학식이 높으며 명성을 날린 사람도 그 이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결국에는 죽습니다. 평생을 수고하며 쌓은 것들도 사람이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으니 헛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14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144:4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말씀합니다. 또 전도서 3:18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 안에 살지 않는다면 짐승과 다름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체험한 솔로몬왕은 말년에 이르러서야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깨우치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전 12:13~14) 교훈하였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 안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와 권세, 지혜가 있다 해도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결과는 죄의 값인 사망,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인생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대로 인생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사는 날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므로 천국에서 끝없이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세세토록 고통 중에 살아가게 되지요.

욥은 과거를 생각해 보면 행복한 순간이 많이 있었지만 현재의 고난 때문에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설령 지금은 환난 중에 있다 해도 과거에 누렸던 축복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미래를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괴로움이 가득하다는 것은 신앙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쁘고 즐거움이 넘칩니다. 하루가 지나면 신앙 되신 주님을 만날 날이 그만큼 가까워지고, 열심히 일한 만큼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져 가니 기쁘고 즐겁지요.

우리는 꽃같이 반짝 피었다가 시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더욱 새롭고 성령 충만하며 영혼이 점점 잘되어 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16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한 대로 육의 사람이 점점 비진리인 욕을 벗어 버리고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24~25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시며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주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삶을 살 때에 건강의 축복은 물론,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시며 가정이나 사업터, 일터에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만사형통한 삶을 영위할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이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모두 육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을 스스로 부정하며 믿음의 역사를 막아 버리는 욥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욥 14:3~4)

욥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욥을 살피시는 것은 맞지만 심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이끌어서 심문하신 것이 아니라 욥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한 죄에서 돌이켜 성결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 살피시지요.

그런데 욥은 선조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통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어렵듯이 알고 있었을 뿐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오해하며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욥은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면서 “하나도 없다!”라고 스스로 단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뒷전에 두는 말입니다. 욥의 교만을 엿볼 수 있는 말이며, 더욱이 이 말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으며 더러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 주심으로 더러움을 벗어 버리고 깨끗하고 성결된 참 자녀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욥은 이러한 하나님을 스스로 부정하며 믿음의 역사를 막아 버리고 있습니다.

3.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임의로 정해 놓은 것이라고 항의하는 욥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욥 14:5~6)

욥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예정해 놓고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등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욥 자신도 예정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불쌍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연약한 자이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쉬게 해 주세요. 아무 자유가 없이 시키는 대로만 일하는 품꾼같이 인생을 마치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품꾼은 그날그날 노동의 대가로 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은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품꾼같이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기에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유 의지 가운데 선을 행하기도

하고 반대로 악을 행기도 하며, 사랑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를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러한 모든 행위에 관한 심판을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 욥과 같이 자신이 잘못해 놓고도 모두 하나님 탓으로 돌려 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여 대학에 떨어졌는데, 마치 하나님이 떨어지게 한 것처럼 오해하거나,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가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책임을 돌리면 중심에서 감사가 나올 수 없고,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이 와도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이며, 어려움을 당해도 정확한 공의의 법칙 속에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진리로 비춰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행함으로 자초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설령 앞길이 짝 막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라 해도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습니다. 이때 요나는 절망한 것이 아니라 삼 일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도를 올리니(욘 29)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주관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욥은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으며 아예 부정적인 고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예정의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 중심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전함과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 욥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올바르게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이 땅의 삶이 끝이라 생각하기에 천국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기에,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믿음의 행군을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시험이나 연단이 와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지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점점 죽음을 향해 나아가지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루가 지나는 만큼 아버지를 뵈을 날이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과 온 집에 충성한 모세

읽을 말씀 / 민수기 12:3, 7

외울 말씀 / 민수기 12:7

참고 말씀 / 출애굽기 32:32

교육 내용 /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처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온 집에 충성하는 영적 장수가 되게 한다.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낸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평을 일삼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늘 마음에 품고 놓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백성이기에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지만 모세는 이들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습니다.

1. 모세의 출생과 시대적 배경

이스라엘 백성이 거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야곱과 그의 일가족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거기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어 양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주 당시 70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혈족은 갈수록 번성해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애굽 총리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은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며 학대하지요(출 1:9~10).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더욱 번성하니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는 이런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석 달간 모세를 숨겨 키우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넣어 강물에 띄웁니다. 그때 마침 목욕하러 나온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지요. 하나님 은혜로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로 추천되고, 공주는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며 키우게 합니다.

이로써 모세는 어린 시절 친어머니에게 히브리 민족과 하나님에 대해 배웠고, 애굽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한편에는 친어머니에게서 들은 하나님과 애굽에서 고통받는 자기 민족에 대한 연민이 떠나지 않았지요.

2. 광야에서 40년 연단의 세월을 보낸 모세

어느 날 모세는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 그를 쳐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다음 날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잘못된 사람에게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말리지요. 그러자 그가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하므로 애굽인을 죽인 것이 탄로 납니다. 이에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찾습니다.

만일 모세가 자기 안위만 생각했다면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도 자신에게 해가 미칠까 봐 모르는 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민족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히 11:25).

결국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양 무리를 치며 삽니다. 왕자의 자존심이나 자신감도 사라지고 평범한 양치기의 생활에 적응해 갔지요. 이러한 광야 생활이 적응되니 마음의 연단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은 가진 자 같았으나 막상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졌지요.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자기 의분에 못 이겨 사람을 쳐 죽였던 모세가 이처럼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적으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있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자로서 당당한 모세가 아니라 철저히 낮아진 모세를 원하셨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온전히 비운 모세를 불러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고 큰 사명을 주십니다.

3.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모세

온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와도 걸리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합니다. 자기 생각과 교양에 맞지 않아도 품어 주지요. 믿음이 연약하고 악을 발하는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변화될 것을 바라며 기다려 줍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장정만 해도 6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시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도 원망하였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를 범함으로 마침내 멸망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모세의 온유함이 얼마나 승했는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 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며 방탕하게 먹고 마시며 뛰놀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중보 기도를 올리지요(출 32:31~32).

모세는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즉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담보로 멸망할 위기에 처한 백성을 구해 달라고 했지요. 결국 모세의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처럼 모세는 자신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으로 그들을 품었습니다.

4. 온 집에 충성한 모세

‘충성’이란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은 물론이요, 맡은 직무 이상을 너그럽게 감당해 내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온 집에 충성’이란 자기가 속한 교회 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일터, 사업터 등 주어진 모든 분야에서 충성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온 집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과 정성, 시간과 물질까지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자신을 낮추어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는지를 알 수 있지요.

당시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모세를 원망하고 대드는 백성들이 이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백성의 지도자가 되면 그만큼 져야 할 짐도 많고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모세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난관을 뚫어 나갔습니다.

아버와 같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품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이끌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 날부터 생명이 다하기까지 모세는 단 한 순간도 편히 지낸 적이 없었지요. 백성들로 인해 흘린 눈물과 그들을 위해 올렸던 애통의 기도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라’고 늘 간구했던 것입니다.

혹여 ‘사명이 무겁고 힘들다. 놓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부터 생명이 다할 때까지 충성하고서도 열매가 적다며 민망히 여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 평가 및 적용하기

1.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낸 출애굽의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2. 하나님께서는 왕자로서 당당한 모세가 아닌, 어떤 모습을 원하셨나요?
3.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방탕하게 먹고 마셨을 때 진멸하고자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린 기도는 무엇인가요?
4. 히브리서 3장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으로 충성하였고” 말씀합니다.

● 금주 과제

〈지난주 설교 요약, 구역공과〉 읽고 복습하기.

● 알고 넘어갑시다!

◆ ‘모세의 선’

1.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2. 연단 중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것에 중심에서 감사했다.
3.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다.
4. 온 집에 충성했다.

이재록 목사 저서 인터넷 구입 안내

- ◆ 생명력 넘치는 이재록 목사의 저서를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 1544-1900)
- 영풍문고 (www.ypbooks.co.kr ☎ 1544-9020)
- 예스24 (www.yes24.com ☎ 1544-3800)
- 인터파크 (book.interpark.com ☎ 1577-2555)
- 우림북 (www.urimbooks.com ☎ 02-818-7241)

교구 편성표

본 교회는 지역별로 교구를 형성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남장년, 금요일 여장년 구역예배가 있습니다

총괄대교구장: 이수진

1대대교구장: 이미경 대 교 구 장: 조혁희

1교구장	최성숙	구로구(가리봉동134-130번지)
2교구장	권영남	구로구(가리봉동 00-133번지, 구로3동 125-252번지, 구로3동 1123-125, 1274번지)
3교구장	장정미	구로구(가리봉2동, 구로본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256, 773-851, 1271, 1278-1279번지, 구로4동, 구로5동, 신도림동)
4교구장	최영신	구로구(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천왕동, 향동, 은수동, 궁동)
5교구장	이석규	영등포구
6교구장	류순주	양천구, 강서구, 김포시

2대대교구장: 조대희 대 교 구 장: 조수열

7교구장	이성숙	금천구(가산동)
8교구장	김영순	금천구(독산동, 시흥동)
9교구장	최영자	광명시(철산동, 광명동, 노온사동, 옥길동)
10교구장	안성현	광명시(하인동, 소하동, 가학동, 일직동, 학은동)
11교구장	조은영	동작구(삼도동, 사당동, 동작동, 흑석동, 대방동, 노량진동)
12교구장	임학영	동작구(신대방1동, 신대방2동)
13교구장	정진영	관악구
14교구장	서덕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3대대교구장: 이미영 대 교 구 장:

15교구장	문신현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16교구장	박금미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17교구장	차경숙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18교구장	황미경	안산시, 시흥시
19교구장	박광현	부천시
20교구장	이영인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21교구장	이풍근	인천시

중국대교구장: 황금란

중국1교구장	정규원	중국동포 구로구
중국2교구장	오인숙	중국동포 서울시(구로구 제외), 경기도
중국3교구장	윤영자	중국인
해외교구장	문신현	국내거주 외국인 성도

부설 기관

만민기도원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이 난치, 불치병 등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갖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있습니다.

원 장/ 이복님
문의전화/ 02-818-7102

알려드리는 말씀

본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교회 소식

- 당회장님의 저서 「젓과 꿀이 흐르는 땅」 핀란드어 종이책이 발간되었고,
「근본의 소리를 말하라」 우크라이나어 전자책이 발간되었습니다.
- 당회장님의 저서 주재설교 모음 예배편, 기도편, 믿음편, 치료편, 응답편이 오디오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교보문고 앱과 네이버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당회장님 신앙칼럼이 「기독교신문」, 「시사뉴스」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 만민뉴스 영어(732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만민뉴스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 정기 원로회가 오늘 저녁예배 후 오후 5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 2022년 제2차 정기 당회가 오늘 원로회 후 이어서 온라인 회의로 있습니다.
- 2023년 사무연회가 12월 25일(주일) 저녁예배 후 온라인 회의로 있습니다.
- 오늘은 2023년도 각 선교회 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시 선출할 일꾼의 자격」
 - 1) 기도하는 사람
 - 2) 온전한 주일을 지키는 사람
 - 3) 온전한 십일조를 하는 사람
 - 4)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는 사람
 - 5) 희생과 순종하며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
 - 6) 사랑과 덕이 있는 사람
 - 7) 리더십(지도력)이 있는 사람
 - 8) 겸손한 사람

- 김진홍 장로(우림북 대표)가 12월 6일부터 19일까지 이스라엘 총리실(GPO)에서 주최하는 Christian Media Summit 2022(기독교미디어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차 출장합니다.

※ 출장기간: 12월 9일 ~ 16일

- 당회장님 저서를(주보 맨 뒷장 참고)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e-book)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드립니다.**

강단헌화/ 해외 지교회(꽃꽂이 봉사: 예배국 미화부, 시설관리국)

2023년도 정기총회 일정

일 자	기 관	시 간	장 소	비 고
11/27(주일)	남지역장	대예배 후	1층 카페	
	남조장	대예배 후	3층 성전	
	남구역장	대예배 후	사택 예배실	
	장로회	저녁예배 후	3층 성전	
	여지역장	저녁예배 후	사택 예배실	
11/28(월)	여조장	오전 11시	사택 예배실	
	여구역장	오후 1시	3층 성전	
11/30(수)	권사회	오후 2시	3층 성전	
	빛과소금선교회	오후 9시	1층 카페	
12/3(토)	학생주일학교 교사연합회	오후 3시	1층 카페	

12/4(주일)	가나안선교회	대예배 후	3층 성전	현장 온라인 병행
	중고등부	대예배 후 오후 1시 20분	3층 회의실	온라인
	남선교회	대예배 후	남선교회 식당	
	청년선교회	대예배 후	사택 예배실	현장 온라인 병행
	여선교회	저녁예배 후	3층 회의실	온라인
	기도제물연합회	저녁예배 후	사택 예배실	
	만민봉사대	저녁예배 후	3층 성전	
	아동주일학교 교사연합회	저녁예배 후	1층 카페	

12/11(주일)	각 기관총회	대예배 및 저녁예배 후	자체실시	
-----------	--------	-----------------	------	--

— << 교구별 현장예배 장소 >> —

일 정		3층 성전	사택 예배실
12월 11일	대예배	1대대교구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저녁예배	7~10 교구	중국대교구
12월 18일	대예배	7~10 교구	1대대교구
	저녁예배	중국대교구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12월 25일	대예배	중국대교구	7~10 교구
	저녁예배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1대대교구
2023년 1월 1일	대예배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중국대교구
	저녁예배	1대대교구	7~10 교구

지성전	주 소	담당/연락처
강 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검 단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구 리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차경숙 전도사 010-2290-1856
부 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북 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72 남송빌딩	문신현 목사 010-7736-9333
분 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세신빌딩 401호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수 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이영인 전도사 010-4820-1700
안 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황미경 전도사 010-9636-7977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이 천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인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일 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 B/D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GCN,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주요 프로그램 안내

12/11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00:00 - '십자가의 도 23' 이재록 목사 05:00 - '욥기 강해 11' 이수진 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00 - '요한일서 강해 27' 이재록 목사 18:30 - '배려의 마음과 축복' 조수열 목사
12/12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00 - '감사하는 삶' 이수진 목사 07:05 - '요한일서 강해 28' 이재록 목사 08:00 - '천국 45' 이재록 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00 - '젖과 꿀이 흐르는 땅 7' 이수진 목사 15:30 - '사랑 1' 이재록 목사 19:30 - '우리 삶의 등불 73' 이재록 목사
12/13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00 -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2' 이수진 목사 08:00 - '천국 46' 이재록 목사 10:20 - '십계명 2' 이재록 목사 12:05 - '믿음을 척량하시니 4' 이재록 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00 - '십자가의 도 24' 이재록 목사 17:00 - '요한일서 강해 29' 이재록 목사 18:00 - '욥기 강해 12' 이수진 목사 19:00 - 구역 공과 24
12/14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00:00 - '일곱교회 2' 이재록 목사 01:00 -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1'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05:00 - '요한계시록 강해 58'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12:05 - '믿음을 척량하시니 5' 이재록 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00 - '일곱교회 1' 이재록 목사 15:30 - '사랑 3' 이재록 목사 17:00 - '요한일서 강해 30' 이재록 목사 18:00 - '우리 삶의 등불 68' 이재록 목사
12/15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00 - '욥기 강해 32' 이수진 목사 07:05 - '요한일서 강해 31' 이재록 목사 08:00 - '천국 48' 이재록 목사 10:20 - '십계명 4' 이재록 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05 - '믿음을 척량하시니 6' 이재록 목사 13:00 - '공부 잘하는 비결 5' 이재록 목사 15:30 - '사랑 4' 이재록 목사 19:20 - '욥의 행사' 이수진 목사
12/16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08:00 - '천국 49' 이재록 목사 10:20 - '십계명 5' 이재록 목사 14:00 - '일곱교회 3' 이재록 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00 - '요한일서 강해 32' 이재록 목사 19:00 - 천지창조의 섭리 19 20:40 - 독일 연합대성회 3
12/17 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07:05 - '요한일서 강해 33' 이재록 목사 10:00 - '영적 예배' 이재록 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05 - '믿음을 척량하시니 8' 이재록 목사 19:40 - 우리 삶의 등불 53

※ 이 편성표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02-824-7107, 1577-2073 / webmaster@gcntv.org

※ KT olleh tv 882번 및 유튜브 GCN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 서비스 안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전화로 듣고
환자를 위한 기도를 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02) 830-5320

-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_ 10분
- 운전을 위한 기도_ 20분
- 3분 설교_ 30분
- 환자 기도_ 40분, 41번(영어), 42번(불어), 43번(중국어)
- 찬양_ 50, 60분
- 하루를 마치는 기도_ 70분

인터넷 예배 안내

예배실황이 KT olleh tv 882번, 유튜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국 및 전 세계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 다국어 방송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 생중계 시간 주일 대예배_ 오전 11시 30분
주일 저녁예배_ 오후 3시/ 수요예배_ 오후 7시
금요일예배_ 오후 11시
다일예배_ 매일 오후 9시
- ▶ 기타 녹화 방송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manmin.org
- 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m.manmin.org
- GCN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www.gcntv.org
- GCN방송 모바일 홈페이지 m.gcntv.org

- Dec. 11(Sun.)

(John 5:14) “Afterward Jesus found him in the temple and said to him, “Behold, you have become well; do not sin anymore, so that nothing worse happens to you.””

- Dec. 12(Mon.)

(John 6:29) “Jesus answered and said to them, “This is the work of God, that you believe in Him whom He has sent.””

- Dec. 13(Tue.)

(John 6:55) “For My flesh is true food, and My blood is true drink.”

- Dec. 14(Wed.)

(John 8:32) “And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make you free.”

- Dec. 15(Thu.)

(John 9:31) “We know that God does not hear sinners; but if anyone is God-fearing and does His will, He hears him.”

- Dec. 16(Fri.)

(John 9:32) “Since the beginning of time it has never been heard that anyone opened the eyes of a person born blind.”

- Dec. 17(Sat.)

(John 10:27) “My sheep hear My voice, and I know them, and they follow Me;”

금주의 성경구절

12월 11일(주일)

(요 5:14)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12월 12일(월)

(요 6:2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12월 13일(화)

(요 6: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12월 14일(수)

(요 8:32)

진리를 알지(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2월 15일(목)

(요 9:31)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12월 16일(금)

(요 9:32)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12월 17일(토)

(요 10:27)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전 세계 영혼을 깨우는

이재록 목사 저서 안내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으며/ 이재록 목사 간증 수기
멈추지 않는다

나의 삶 나의 신앙 ①, ②/ 이재록 목사 자서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 (상·하)

지옥

영혼육 (상·하)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주님의 자취 (상·하)/ 요한복음강해

고린도전서강해 (상·하)

하나님의 씨/ 요한일서강해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상·하)/ 음기강해

고백/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100편

눈물/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정복사

일곱 교회/ 이상적인 교회 지침서

깨어난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예언서

신앙인의 기본

지혜/ 자기개발서

공부 잘하는 비결/ 자기 주도 학습법

성경과 권능 시리즈

(2주년속 특별 부흥성회 설교집)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임문편 1

내가 사행하니/ 임문편 2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임문편 3

와 보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실천편 1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실천편 2

권능/ 실천편 3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실천편 4

육과 영/ 핵심편 1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핵심편 2

하나님은 빛이시라/ 핵심편 3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핵심편 4

네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성경 인물 시리즈 1

나의 택한 아픔아 나의 빛 아브라함의 자손아/ 성경 인물 시리즈 2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성경 인물 시리즈 3

엘리아를 나뉘게 보내리니/ 성경 인물 시리즈 4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주제설교 모음 1 믿음편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 2. 응답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 3. 예배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 4. 기도편

치료하는 영약/ ... 5. 치료편

하나님의 법도/ ... 6. 심계명편

참된 복을 좇는 자/ ... 7. 팔복편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 ... 8. 열재앙편

기이한 일

희한한 능

등불/ 칼럼 모음

자혜의 샘/ 장언칼럼 모음

생명의 샘/ 베네딕도 칼럼 모음

만화로 보는 자혜의 샘 (상·하)/

사명과 헌신/ 헌신예배 설교 모음 1

말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 ... 2

영원한 것을 위하여/ 방송설교집 1

겉옷을 내어 버리라/ ... 2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 3

옛새 동안의 만나 (상·하)/ 설교자료, 구역공과

간추려진 만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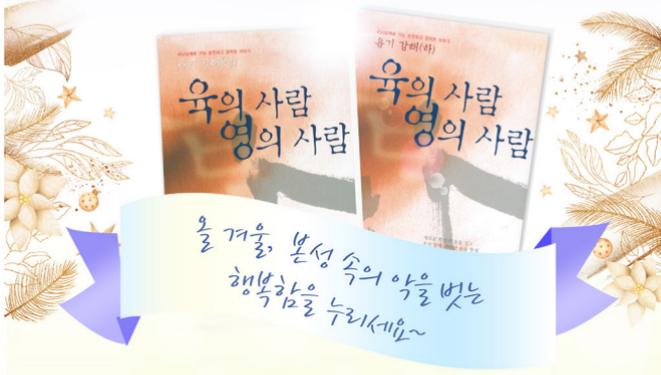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들/ 성도 신앙 간증집

주 예수를 믿으라/ ... 2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 3

하나님은...!

12월 WINTER 추천도서



12월 추천도서 <육의 사람, 영의 사람(하)>

URIM BOOKS www.urimbooks.com

내 삶의 등불/ 독후감 수상집
갈릴리야 꽃보다 붉은 사랑이여/ 성자순례 회보집
학습 세례 문답서

한디북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참된 복을 좇는 자/ 팔복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십자가의 도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천국 (상)

이동용(주니어 Bible Study)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 심계명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①, ②
참된 복을 좇는 어린이 ①, ②
십자가의 도 ①, ②
선
공부 잘하는 비결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기도

출발! 아름다운 천국여행
7일간의 설리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학생용(청소년 Bible Study)
젓과 꿀이 흐르는 땅 ①, ②
선
믿음의 분량
지혜와 명철
공부 잘하는 비결
주님의 자취 ①, ②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몸의 행실
십자가의 도 ①, ②
만나Time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유아 유치용(키즈 Bible Study)
공부야, 놀자!
나는 예수님 닮은 기도대상!
선

-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구입
- 전자책 구입: 국내 주요 서점 리디북스, 아마존닷컴(amazon.com), Google Play, iBookstore
- 아마존닷컴(amazon.com)에서 종이책 구입 가능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블로그 blog.naver.com/urbooks, 페이스북 facebook.com/urbooks17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23)

정기 예배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1부 대예배	오전 10:00	각 성전
주일 2부 대예배	오전 11:30	각 성전
주일 저녁 예배	오후 3:00	각 성전
빛과소금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9:00	각 성전, 북부·강동지성전
빛과소금 요식업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11:00	각 성전
금요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00	각 성전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00	각 성전
새벽예배	매 일 오전 5:00	각 성전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화요일 오후 8:30	각 성전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수요일 오후 9:00	각 성전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토요일 오후 4:00	각 성전
아동주일학교(주일예배)	대예배/ 오전 11:40 저녁예배/ 오후 1:30	

※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예배시간 및 관련 문의 : 만민중앙교회 기획실 ☎ 02-818-7236